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 어린이집
이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SU YAN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 어린이집
이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지도교수 이연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SU YAN

SU YAN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8월 28일



위원장	철학박사	이희영 (인)
위원	교육학박사	이경화 (인)
위원	철학박사	이연우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다문화가정	5
2. 다문화가정과 자녀양육	8
3. 다문화가정과 어린이집	14
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선행 연구	18
III. 연구방법	21
1. 연구 참여자	21
2. 연구절차	24
3. 자료 분석	27
IV. 연구 결과	30
1. 중국인 어머니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	30
2. 중국인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	41

V. 논의 및 결론	45
1. 논의	45
2. 결론 및 제언	48
참고문헌	50



표 목 차

<표 1> 국제결혼 총 건수	6
<표 2> 지역유형별 다문화아동 재원어린이집 현황	16
<표 3> 연구 참여자와 자녀에 대한 정보	21
<표 4> 면담용 질문지	25
<표 5> 개별면담에 관한 사항	26
<표 6> 소주제 도출	28



**A Qualitative study on Chinese Mothers' Experience of
Daycare Centers in South Korea**

SU YAN

**Major i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an unfamiliar cultural environment, par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have many difficulties in raising children and they depend on educating their children to daycare center. Through this research, Chinese mothers who raising children in South Korea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experiences in using daycare center, to understand their current situation and support requirem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effective education content and for Chinese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For the purpose, five Chinese mothers raising children in South Korea were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Chinese and then translated in Korean. By using the method of continuous comparison, the collected data were encoded and classified. Through the process, two themes and seven sub-themes were drawn.

Result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mothers considered the following factors in the process of choosing daycare center: the quality of teaching, the cost, the distance from home and the center environment. Chinese mothers mentioned that, by sending their children to daycare center, their burden of child care was reduced and their children showed positive changes. However, Chinese mothers were inconvenienced by high rate of teacher's turnover and a limited space of daycare center.

Also, they talked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daycare center in terms of preschool curriculum and cost. Mothers mentioned that Chinese daycare center focused on teacher's direct teaching rather than play based learning. Due to provision of the subsidy in using daycare center in

Korea, the cost in using Chinese daycare center were more expensive.

Second, Chinese mothers wanted the daycare center to teach bilingual language and knowledge for school readiness to be well prepared for primary school. In addition, Chinese mothers requested daycare center to provide flexible opening and closing time by considering parent's work and rest time. Also, they asked for the effective parent education to empower the parent role.

Based on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al support for the young children from Chinese multicultural family. Also, sufficient supports for their parents should be provided to help child rearing and adaption in different environment.

Keywords : Chinese Mothers, Experience of Daycare Centers, Multicultural Families, Qualitative Stud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민은 인간사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세계 경제 성장 및 사회발전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민은 한 개인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민 국가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이민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국제 이민은 세계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세계 경제와 사회의 발전 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Koser, 2008), 해당 국가별 이민의 특성 및 변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의 국제 이민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세계 각 나라에 알려지면서부터 산업 연수생과 유학생, 또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의 이민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황정, 2015). 여기에 북한 이탈주민까지 가세하면서 한국은 다른 국가에서 이민한 주민들의 고유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조경애, 2014). 이주민에 대한 시각은 2000년대 이전에는 단순히 낯선 외국인들이라는 호기심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을 뿐 그들이 가진 고유문화를 인정하지는 않았다(황정, 2015).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이주민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시각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2020년 4월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법무부, 2020)에 의하면 유학이나 근무 등으로 3개월 이상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인 1,711,74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수치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한국 이주 현상이 가속화되며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낯선 이방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문화형태에 초점을 맞추며 그들의 고유문화도 존중하고 있다(조경애, 2014).

이민자 집단 가운데 중국인들은 한국 다문화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 중 하나이다. 2020년 4월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법무부, 2020)에 의하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은 964,39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또한 2018년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은 5,160건으로 국제결혼 총 건수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이고 같은 동아시아권의 국가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본래 중국은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소수민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며 소수민족마다 각기 다른 고유문화와 풍습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단합을 중시하는 단일민족사회인 한국에서 중국인 이민자의 경우 적응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이예겸, 2015). 이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유효령, 김보경, 2016; 윤지원, 김상욱, 2017; 추민교, 2017)들에서 유학생들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형성한 외국인 어머니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이 선행연구(정옥희, 2013; 이래혁, 장혜림, 2019; 이은경, 2016)들에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적응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낯선 문화권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보통의 가정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최호정과 조윤경(2018)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어머니

는 자신의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이러한 자녀 양육과 교육지원에 대하여 유아교육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수진, 2014).

관련 선행연구 또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유아교육기관 사이의 상호호혜적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연구(김은실, 2012; 현정환, 2008), 어린이집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분석한 연구(양영주, 2010; 유희정, 2008), 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다문화 어머니 인식을 조사한 연구(신준섭, 최옥주, 2014),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지원한 내용을 분석한 연구(정창용, 조미경, 2015; 최현미, 2016)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경우 어린이집이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가시키고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에서 양적조사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단편적인 인식만이 드러나 있으므로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만큼 부모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 대해 요구를 분석한 연구(한경님, 2013; 이주영, 2009)가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20대~30대 중국인 어머니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어린이집 이용 경험과 그에 따른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사회에서는 1978년 중국 개혁개방(改革開放) 이후 출생하여 성장한 1세대를 '80후'(80後) 세대라고 지칭한다(百度百科, 2020). '80후' 세대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다국적 문화를 경험한 세대로써 이전의 세대들과는 가치관이나 교육관에서 뚜렷한 인식의 차를 보인다. 이들은 기

성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개방적인 특징이 있다(姜姍, 2013). ‘80후’ 세대는 중국에 자본을 둔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 중인 ‘80후’ 세대인 20대~30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연구에서 특정 사회문화가 가진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그 문화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지게 된다(서덕희,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어머니들의 사회적·문화적 가치관과 관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중국인 연구자가 중국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어린이집에서 중국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내용 및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 문제

첫째,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 어린이집 이용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중국인 어머니가 한국 어린이집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가.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이라는 개념은 문화와 문화의 정체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가정 구성원이 각자 속하는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인 정체성이 내재된 것이다(이은경, 2013).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은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보편적인 가정이 아닌 민족·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가정을 의미한다(박찬옥 외, 2011). 외국 선진국가에서는 그 사회와 지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여 다문화 가정으로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인정 범위 대상이 매우 좁은 편이다.

박효섭(2006)은 다문화가정 유형을 가족 구성별 특징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으로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한국 취업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생산·기능직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 외국인 근로자 가정, 그리고 휴전 이후 북한을 떠나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고 공식적으로 주민등록을 취득한 북한지역 출신 주민 '새터민'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문화가정이란 한 가정 내에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그리고 새터민 가정을 지칭한다(봉진영, 2011).

나. 다문화가정의 현황

세계화로 인해 지구는 하나가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활발히 이동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에서 이주해 오는 여성들의 증가로 인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도 따라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혼인 건수는 1996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서종남, 2010). 이러한 증가 추세를 2013년에서 2018년까지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 현황을 분석한 <표 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1> 국제결혼 총 건수 (단위: 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제결혼 총 건수	25,963	23,316	21,274	20,591	20,835	22,698
한국남자+ 중국여자	6,058	5,485	4,545	4,198	3,880	3,671
중국	6,058	5,485	4,545	4,198	3,880	3,671
베트남	5,770	4,743	4,651	5,377	5,364	6,338
필리핀	1,692	1,130	1,006	864	842	852
일본	1,218	1,345	1,030	838	843	987
캄보디아	735	564	524	466	480	455
태국	291	439	543	720	1,017	1,560

미국	637	636	577	570	541	567
기타	1,640	1,810	1,801	1,789	1,902	2,178
한국여자+ 외국남자	7,656	7,164	6,597	5,769	5,966	6,090
일본	1,366	1,176	808	381	311	313
중국	1,727	1,579	1,434	1,463	1,523	1,489
미국	1,755	1,748	1,612	1,377	1,392	1,439
캐나다	475	481	465	398	436	402
호주	308	249	254	197	203	189
기타	1,572	1,931	2,024	1,953	2,101	2,258

출처: 통계청(2018), 인구동태통계연보.

2018년도에 들어서 외국인과의 혼인은 22,698건으로 전년대비 1,863건보다 약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을 살펴보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경우는 전체의 약 73.2%이고,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경우는 전체의 약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은 베트남인 여성(38.2%)이거나, 중국인 여성(22.1%) 그리고 태국인 여성(9.4%)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8월 한·중 양국이 정식적으로 수교한 후 한국과 중국, 양국 관계는 신속하게 발전되어져 왔으며 양국경제발전에서 거대한 성과를 얻었다. 통계정보를 보면 한중 무역 수교를 체결한 1992년도의 양국무역 총액은 50억에 달했으며, 2018년까지 31,343억 달러로 되었다(商務部, 2019). 한국과 중국

의 교류가 이어짐에 따라 양 국가 간의 국민 교류는 더욱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 내 한류 문화에 대한 소개 이후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이어지며 중한 국제결혼 또한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인과 한국인 국제결혼을 하는 건수는 총 국제건수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이 가정을 이룬 경우는 주로 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으로 구성되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유학, 취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유입한 중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다문화 가정은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중국의 고유문화와 한국의 고유문화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사회적 배경이나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중국인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식 자녀양육 및 교육방식과 중국식 자녀양육 및 교육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이예겸, 2015) 중국인 가정은 자녀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내 중국인 가정 중에는 부부가 모두 중국인의 경우도 있다. 이런 가정은 가정 내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은 없지만, 자신들의 가정의 문화와 주변 외부의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거나 문화를 이해시켜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2. 다문화가정과 자녀양육

가. 다문화가정 부모의 특성

한국의 다문화가정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들의 결혼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유입과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국제결혼으로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시작되었다(모경환, 서종남, 2010). 이처럼 한국에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출신국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한국에서의 지위가 달라 갈등과 혼란을 경험한다. 또한, 가부장적 가정 분위기의 한국 사회와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여성들의 과중한 가사와 자녀양육 부담 때문에 다문화가정 내 남편과 아내의 불균형적인 역할을 인정하지 못하여 갈등을 빚게 된다(김이선, 2007; 서종남, 2010).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문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익숙하지 않은 타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습은 이주 여성들에게 매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김갑성, 2006).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남성 위주의 문화, 며느리의 업무 과중, 시부모에 대한 의존 등은 사회주의 국가나 모군이 강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김은숙, 2010; 박정숙, 2007).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한국어 능력 부족과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갖는 불안감은 이주여성의 심리적 위축과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자녀 교육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자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서 자녀들이 보이는 무시와 불신은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은실, 2012). 반면에 김민정(2010)에 연구에 의하면 결혼 후 이민을 온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및 사회문화적 적응이 보통 정도 수준이며 대체로 적응수준이 양호하다고 한다. 또한, 한국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다양한 지원 체제와 문화에 적응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다른 언어·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많은 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과 모국 간의 문화 차이, 언어 문제, 생활습관 차이로 인해 한국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

유아기는 유아가 가장 활발히 성장하는 시기이며 두뇌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서 인지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는 때이다. 또한 유아기 동안 유아는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 좋은 것을 쉽게 익히기도 하지만 나쁜 것도 분별없이 쉽게 배울 수 있으므로 바른 인성과 분별력을 키워주기 위한 각별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권오희, 2006).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는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태어난 일반 아동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수도 있기 때문에(서종남, 2010)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언어발달이 늦고 초등학교 입학 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기 힘들어 학습 부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설동훈, 2006; 조영달, 2006). 모든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므로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으며 잘 성장할 수 있다(박소영, 2011). 이와 비슷하게 염혜정과 한경님(2012)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아기 시기의 언어발달에서 겪는 어려움은 사회성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유아의 기본적 교육 환경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유아시기에 습득해야 할 발달적인 과정들을 적절하게 거치지 못해 취학 이후 늦은 언어발달로 인한 학습

결손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김동학, 2020).

다문화가정 유아는 사회 및 정서적 발달영역에서 일반가정 유아와 다른 발달 특성을 나타낸다(구호진, 2009). 다문화가정 유아는 놀이시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평행놀이를 하거나 주변을 배회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은 문화적 정체성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갑정, 고은경, 2006).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언어발달, 정서적 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각기 다른 민족·문화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성장하는 자녀들은 양쪽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워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또래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외모로 인해 놀림을 받을까봐 걱정한다. 또한 부모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심리적 위축감을 가져 또래에게 민감하고 소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다문화가정은 이중 문화 또는 다중문화의 존재로 인해 가치, 신념, 사회·문화적 행동 양식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중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때로 가정 내에 갈등과 긴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 (남상아, 2011). 다문화가정 유아 또한 부모의 서로 다른 생활풍습과 가치관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의 학교 교육과 다른 나라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특수한 정체성을 가진 ‘주변인’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김동학, 2020).

종합해보면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특성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부모들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형성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주류사회의 문화와 차이가 있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에게 발달적 위험을 인지하여 극복하고 긍정적 발달을 충분

히 이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다.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의 어려움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던 국제결혼 여성들이 언어, 문화, 생활 습관이 다른 나라에 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가족 내에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곽정선, 2011). 2018년 다문화가정 자녀는 총 226,145명이며 이 중 미취학 아동은 49.2%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18). 취학 전 자녀들의 사회화는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존재이다(한상영, 2011). 그러나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언어와 생활 측면의 완벽한 적응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박경민,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교육에서도 많은 한계를 느낀다(박지숙, 이운정, 2015).

외국 출신의 어머니들은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발달관계에 적합한 장난감이나 책의 구매 등이 어렵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적다(노미향, 2009).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머니를 통해 배워야 할 언어를 배우지 못하므로 발달상 언어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양육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이교일,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에 따르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어휘력과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언어 문제가 학습부진의 가장 큰 이유(박미경, 2007)라고 설

명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신효선, 2008; 정현영, 2006)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또래 관계나 집단의 시선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이르러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한미숙, 2009).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발달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영주, 2007).

또한 한국사회의 자녀 양육방식을 모르고 정보도 부족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 다문화가정 여성으로 해야 할 역할 혼란을 주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 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인 합리적 지도와 제한성, 애정성과 반응성에 영향을 준다(조영숙, 2008).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는 문화 가치관의 차이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자녀교육 문제에 있어 갈등을 경험한다(곽정선, 2011). 서로 다른 생활습관과 문화적 차이 및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인한 감정 전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녀들은 어떤 경우를 따라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영유아들의 경우 기본생활습관 및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배우며 자기 행동조절 능력을 키워가야 할 시기에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김성옥, 2013). 이를 위해 외국인 어머니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곽정선, 2011).

경기도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양육에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정기선 외, 2007).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은 가계소득이 낮은 편인데 여기에 자녀양육으로 인한 지출의 부담은 자녀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지숙, 이윤정, 2015).

종합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인 어머니는 언어문제, 경제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자녀양육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다문화가정과 어린이집

가. 다문화가정 유아와 어린이집의 역할

사회가 산업화 및 도시화 되면서부터 가정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가정주부의 취업등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사회적 구조변화로 인한 유아교육의 주체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여성의 취업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공간의 제한 및 부모의 능력과 시간의 부족 등으로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육적인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김은실, 2012). 따라서 과거 가정에서 맡았던 육아의 기능을 유아교육기관이 순기능적으로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여기서 어린이집의 역할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이 서로의 특성이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래집단 속에서 상호교류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Christian, Morrison, & Bryant, 1998).

다문화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들도 다문화교육 개념의 불확실성과 경험부족, 편견 등으로 인해 교육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윤현숙, 2008). 이러한 경우 교사가 먼저 스스로 다문화가정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함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관계 설정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과 그에 맞춘 유아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 및 교사연수가

요구된다. 또한 일반가정의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다문화에 대한 막연한 편견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은 다문화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부모 사이에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민옥(2013)의 연구에 따르면 점진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회와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를 같이 교육하는 통합 교육을 통해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아직은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들 간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교육시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다양함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문화 및 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익힐 수 있는 시기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다문화교육 운영이 요구된다. 소득수준이 낮거나 부모와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다문화지원센터나 주민센터, 교육청으로의 안내를 통해 언어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나. 다문화가정 유아와 어린이집 이용현황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어린이집으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을 제공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되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7153

호)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는 운영 목적 및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보육통계’에 따르면(2019년 12월 31일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총 17,333명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8,014명(46.2%), 가정 어린이집에 4,633명(26.7%), 국·공립 어린이집에 2,798명(16.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1,072명(6.1%)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6,326명(36.5%), 중소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6,672명(38.5%),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에 4,335명(25%)로 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역유형별 다문화아동 자원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국·공립 어린이 집	사회복 지법인 어린이 집	법인·단 체 등 어린이 집	민간 어린이 집	가정 어린 이집	협동 어린 이집	직장 어린 이집
소 계	17,333	2,798	1,072	572	8,014	4,633	21	223
대도시	6,326	1,405	256	145	2,871	1,532	12	105
중소 도시	6,672	761	210	140	3,173	2,307	4	77
농어촌	4,335	632	606	287	1,970	794	5	41

출처: 보건복지부(2019), 보육통계.

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Ladd와 Price(1986)는 사회적 적응을 측정한 결과 사회적 적응이란 교실에서 또래관계 및 상호작용 관련 행위를 의미한다. 사회의 발달 및 경제적 성장과 함께 어머니들의 사회활동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영유아들은 가정을 떠나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최초로 접하게 되면서 관계형성과 적응이라는 과정에 직면하게 된다(곽민영, 2014). 영유아는 발달과 인격형성의 과정에서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적응은 쉽지 않아 유아가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거나 환경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여 욕구불만이나 갈등상태에 빠지게 되면 문제행동을 표출할 수 있다(김명희, 2011).

실제로 영유아의 문제행동은 양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민영, 2014).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유아의 문제행동이 청년기 및 성인기까지 심각한 부적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문은식, 김미희, 2011; 이희선, 강미화, 2010).

다문화가정의 유아의 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민정과 이병인(2010)은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교수·활동 참여와 놀이활동 참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하는 인과적 조건으로 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양육태도를 들었으며 맥락적 조건으로 다문화가정 교육여건의 미미와 가정의 어려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과 중재적 조건으로 교사와 또래의 지원과 유아의 언어 능력을 꼽았다(장명림, 장혜진, 권미경, 한영숙, 2011). 한편 오재연과 송미선(2009)은 외국인 어머니를 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행동의 구성요인을 유아의 개인적 기술행동, 환

경적응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외국인 어머니를 둔 유아의 한국어 실력이 더 높을수록 개인적 기술 문제와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외모가 다른 친구들과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유아일수록, 친구에게 따돌림 받은 경험이 적을수록 환경적응 문제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장명림, 장혜진, 권미경, 한영숙, 2011). 또한 김희태, 권영덕(2007)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유아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변화의 과정에서 또래들과 함께 노는 가운데 친사회적 행동들과 친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일반 유아들 간의 다양한 놀이 문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김병순,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 장소가 되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선행연구

현재 다문화가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당수 있으나 주로 2010년 이전에 실시된 연구가 많았으며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겪는 어려움에 대한 양적조사연구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은 결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가정의 유입이 늘고 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정도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각을 넓혀 다문화 어머

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양육과 유아교육기관을 연관지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질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미현(2019)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6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의미를 심층면접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 자녀양육 지지체계,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극복,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미래를 향한 결심으로 5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김은실(2012)은 5명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갖게 되는 유치원교육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유치원 교육에서 기대하는 바는 다양한 언어 습득의 기회, 한국의 전통문화 경험의 기회, 또래와의 어울림을 통한 사회성 증진의 기회,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장소로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혜정(2015)은 6명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별적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한 자녀양육에 관한 범주로는 양육 환경 및 주 양육자의 역할 혼동,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갈등, 그리고 자녀교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범주로는 자녀와의 갈등, 자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녀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자녀교육과 자녀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도출되었다.

정창용(2015)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적 시선으로 인한 자신감의 결여에서 오는 참여의 어려움과 외국인 엄마를 둔 자녀의 교육기관 부적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호정, 조윤경(2018)은 어린이집 재원 영아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7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원 다문화가정 영아의 양육 현황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언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영아 행동에 대한 놀이 상호작용과 언어적 자극을 적절하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문화 센터와 어린이집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다문화 어머니들은 영아와 부모에 대한 개별적인 양육지도와 지원, 어머니에 대한 언어와 취업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가정은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의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인 어머니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에서의 자녀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어린이집에서 중국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내용 및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가.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영유아기(2세~6세) 자녀를 키우는 중국인 어머니들의 한국 어린이집 이용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20대~30대 중국인 어머니 가운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 표집을 하였다. 표집기준에 부합되는 중국인 어머니 5명에게 연구 참여를 의뢰하여 본 연구의 내용을 설명한 후 면담에 동의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와 자녀에 대한 정보

참 여 자	모 연 령	학 력	한국어 능력	입 국 기 간	어머니 국적	자 녀 수	자녀 연령	교육기관	자녀 국적	자녀의 사용 언어
A	32	석사	상	7년	중국	2	만 3세 (여)	어린이집	중국	중국어, 한국어
							4개월 (여)	/		
B	37	박사	상	2년 반	중국	2	만 8세 (남)	중국 초등학교	중국	중국어, 한국어

							만 4세 (여)	어린이집		
C	27	학사	중	5년	중국	1	만 3세 (여)	어린이집	한국	한국어, 중국어
D	33	학사	상	16년	중국	1	만 3세 (여)	어린이집	중국	한국어, 영어, 중국어
E	34	학사	하	2년	중국	2	만 5세 (남)	어린이집	한국	한국어, 중국어
							16개월 (남)	/		

나. 연구 참여자 특성

어머니 A

연구자는 학교 지인을 통해 A씨를 만났다. A씨는 한국 부산에 온 지 7년이 되었으며 올해 32살이다. A씨는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을 했고 한국어 고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지금 중국 유학생들을 돕는 중개일을 하고 있다. A씨의 남편은 7년째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올해로 33살 된 중국 사람이고 한국어가 유창하여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A씨의 딸 모두를 한국에서 출산하고 남편과 같이 양육하고 있다. 큰 딸은 18개월 때 어린이집에 보냈고 작은 딸은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고 있다.

어머니 B

연구자는 지인을 통해 한국에 온 지 2년 반 된 37살 B씨를 소개 받았다. B씨는 중국에서 한국어 교사이었으며 현재는 자신의 공부를 위해 작은 딸과 같이 부산으로 왔다. B씨의 남편은 중국회사에서 한국계열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은 양국을 오가며 근무중이다. B씨에게는 중국에서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8살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 B씨의 작은 딸은 중국에서 출산하였으며, 1살 반경에 B씨와 함께 한국에 온 후에 바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다. B씨는 학업이 끝나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어머니 C

‘중국인 한국생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연구자는 재한 중국인인 27살 C씨를 알게 되어 인천에서 만나게 되었다. C씨는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했으며 졸업 후에 취직을 위해 한국으로 왔다. 한국에서 거주한 지는 5년째이며 현재는 전업주부이다.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만났다. 한국에서 출산한 3살된 딸이 한 명 있으며 어린이집에 보낸 후에 다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 D

D씨는 중국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33살이다. D씨는 한국에서 16째 거주 중이다. D씨는 중국 조선족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하였고 현재 3살된 딸과 같이 부산에서 살고 있다. D씨 딸은 8개월 때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다. 남편 가족들은 한국에서 거주 중이지만 서로 거리가 있어서 명절에만 모인다고 한다. D씨는 남편의 직장때문에 조만간 이탈리아로 가서 살 예정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에서 적응하기 위해 지금은 집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어머니 E

‘중국인 한국생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재한 중국인인 E씨를 서울에서 만났다. 34세인 주부 E씨는 8년 전에 중국에서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였다. 큰 아들을 중국에서 낳고 중국 어린이집에 1년 간 다니다가 큰 아들이 3살 때(2년 전) 온 가족이 한국으로 함께 이주하였다. 한국으로 이주 후에 큰 아들은 어린이집에 보냈다. 작은 아들은 한국에서 출산했으며, 집에서 직접 키우고 있다. 한국어를 몰랐으나 공부를 많이 해서 유창해졌다. E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살지 아니면 중국으로 돌아갈지 고민 중이라고 하였다.

2. 연구절차

가. 면담용 반구조화된 질문지 개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중국인 어머니의 어린이집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개별면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어머니의 어린이집 경험과 이에 관한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개별면담을 실행하였다.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첫째, 한국에서의 중국인 어머니에 어린이집 이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어린이집 이용에 관련한 선행연구(이남주, 2019; 이수진, 2014; 황정, 2015; BASMA CHLAIHANI, 2018)의 질문지와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주제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면담용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둘째, 작성된 질문지 초안은 현재 연구 참여자 외 한국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중국인 어머니 1인을 대상으로 약 40분 정도 예비면담을 실행하였다. 실행 결과 중복된 의미의 질문 문항은 삭제하고 폐쇄형 응답이 나온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보완한 면담 질문지는 유아교육학과 교수 1인,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생 1인과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생 1인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완성된 면담 질문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면담용 질문지

면담용 질문지 내용
자녀를 어린이집에 몇 살 때 보냈는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계기가 있는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였는가?
어린이집을 선택한 과정은 어떠한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고려한 사항은 무엇인가?
현재 자녀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만족하는가?
현재 자녀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자녀의 어린이집에 대해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나. 면담 과정

질적 연구는 대부분의 자료를 대화를 통해서 수집하므로 연구 참여자의 말은 관계형성 뿐만 아니라 연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황정, 2015).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밝힌 후 면담에 동의한 중국인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19일까지 중국어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하기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면담용 질문지와 연구의 목적, 연구 진행과정, 연구 참여 중단의 권리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였다. 면담의 장소와 시간은 최대한 연구 참여자 중국인 어머니의 편의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각 참여자마다 1회씩 실행하였고, 각 면담은 개인의 상황 따라 약 45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개별 면담에 관한 사항은 <표 5>와 같다.

<표 5> 개별면담에 관한 사항

참여자	면담일	면담 장소	면담 시간
A	2020.01.10	부산 남구 카페	60분
B	2020.01.11	부산 동래구 카페	55분
C	2020.01.18	인천 남동구 카페	55분
D	2020.01.15	부산 사하구 카페	45분
E	2020.01.19	서울 중구 카페	55분

면담 내용은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전 과정을 녹음 후 전사하였다. 녹음한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쓰인다는 것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자와 자녀에 대한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사항은 익명 처리하여 사적인 정보는 보호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정확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는 연구참여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았다. 개별면담 이후 자료 분석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연구 참여자들의 일정 및 타 지역 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추가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녹음된 모든 면담은 일주일 이내에 한국어로 번역 후 전사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녹음된 내용을 입력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얻은 정보도 포함하여 기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상과 행동, 면담에서 보여준 특징적인 모습은 현장노트에 기록하였으며 전사 내용에 포함하였다. 전사 자료는 총 A4 용지 83페이지의 분량에 해당하였다.

3. 자료 분석

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사한 후 Corbin과 Strauss(2008)가 제시한 연속적인 비교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전사 자료를 각 문장 단위로 끊어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여 부호화하였다. 모든 전사본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며 부호체계가 수정·개발되었다. 면담 전사본을 여러차례 분석하면서 새롭게 부호를 추가시키기도 하고 기존의 부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호화를 완성하였다. 이 중에서 나타난 부호들을 주제에 따라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 전사 자료에 대해 최종적으로 2개의 주제와 7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소주제 도출

범주	주제	주제어
중국인 어머니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2개 국어, 교육철학 넓은 환경, 주변 평가가 좋은 가깝다, 셔틀버스
	한국 어린이집 선택 과정	자녀 국적, 비용 신청기간 길어, 경쟁률이 높아서
	만족	기본생활, 인사, 한국말, 친구 양육에 도움, 말 잘 들어 문자, 사진 많이, 전화
	아쉬운 점	놀이 공간 부족, 좁아서, 선생님 자주 바뀌어
	중국 유아원(幼兒園)과의 차이	선생님이, 글자, 쓸 수 있게, 비용
중국인 어머니의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	초등 준비교육 및 어린이집 생활적응지원	한국어 교육, 중국어도, 영어도 예의 바르게, 좋은 습관 양성 평등하게, 차별 없이,
	가정 양육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배우고, 아이 키우는 지식,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

본 연구의 내용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면담 자료와 현장 노트, 사후 연락을 통해 구한 정보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를 재확인하였다. 면담은 중국어로 진행하였고 전사는 중

국어와 번역한 한국어의 두 가지 전사본을 마련하였다. 한국어로의 번역은 연구자가 수행하였으며 번역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 고급(6급)수준의 중국인 석사과정 유학생 1인에게 중국어 전사와 한국어전사 2/3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 검토를 의뢰하였다. 또한 전사 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유아교육 박사과정생 1명과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사 자료의 1/3 가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유목과정을 거치고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분석자간의 일치율은 약 88%였다.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유아교육학과 교수 1인,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생 1인,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생 1인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최종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 중국인 어머니 5인에게 확인받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과정을 거쳤다.



IV. 연구결과

중국인 어머니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한국에서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경험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또한 중국 어린이집과 한국 어린이집 간의 비교점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와 더불어 면담을 통해 한국 어린이집에 대한 중국인 어머니들의 지원 요구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인 어머니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

중국인 어머니 5명은 모두 현재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어린이집을 보내고 난 후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녀의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이 선택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실제 보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만족스러운 점과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으로 구분되어졌다.

가. 어린이집 선택 경험

중국인 어머니들이 자녀를 보낼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은 주로 어린이집 선택에서 우선시하는 고려사항과 기관선택 시 제한되는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범주화 되었다. 중국인 어머니들은 교육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제약 때문에 우수한 어린이집 선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1)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보육의 질, 보육내용, 교사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기관의 시설규모나 이동 거리 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활할 기관의 공간과 시설·설비 등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이를 기준으로 자녀의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있었다.

원장님 교육철학과 선생님들 소질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선생님 수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중략).

(어머니 B. 20. 01. 11)

선생님 나이나, 경력이요. 유아교육과 출신이면 더 좋아요. 더 전문적이잖아요(중략). 2개 국어 가르치는 것도 고려사항 중 하나예요.

(어머니 A. 20. 01. 10)

중국인 어머니들 모두 ‘교사의 소질’, ‘전문지식’, ‘경력’ 등을 언급하며 자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를 우수한 어린이집의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부모는 교사의 질이 우수할수록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김희경, 2003). 중국의 부모들 또한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내용을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張金果,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 어머니들은 교사의 인성이나 개인적 자질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

적 자질을 주로 언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인 어머니들은 교사가 유아교육에 대해 얼마나 전문적이며 전공 관련 지식을 갖추었는지가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자녀의 어린이집 선택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 공간이 크면 놀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어린이집 안에 장난감도 많을 거구요. 교실이 크면 좋아요(중략). 주변 환경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바로 옆이 큰 차길이면 위험해요.

(어머니 B. 20. 01. 11)

집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차 오래타면 아이 힘들어요(중략). 음식도 중요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이집에서 먹고 놀잖아요.

(어머니 A. 20. 01. 10)

어머니들의 이야기 속에서 ‘넓은’, ‘큰’, ‘좋은’ 등의 단어에서 자녀가 다닐 어린이집의 환경 구성 규모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인 어머니들은 시설이 매우 넓고 환경이 우수해야 자녀의 심신이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믿는다(吳海珍, 2015). 또한 김은실(2012)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를 안전하게 믿고 맡기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의 환경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인 어머니들이 이야기한 ‘근거리’, ‘안전 벽’에 대한 언급은 이와 유사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인 어머니들은 중국과 달리 한국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경비가 없으며 출입문과 도로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인식하며 안전하게 등 하원 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린이집 선택 과정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다닐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의 위치나 교육내용, 주변 어머니들 사이의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싶지만 정보 취득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다른 어머니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이수진, 2014). 즉 자녀의 어린이집을 선택 할 때는 주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경로가 협소하고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녀의 국적으로 인한 제한요소가 있었다고 하였다.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요. 어디가 좋은지, (교육을) 잘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주변에서 좋다는 어린이집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요.

(어머니 C, 20. 01. 18)

중국인 어머니 중 1명만이 인터넷에서 어린이집 정보를 검색 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이 어머니의 경우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을 검색한 후 친한 한국인 어머니에게 그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취합하여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그 외 어머니들은 우수어린이집에 대한 정보취득은 모두 중국인 어머니인 주변인에게 의존하며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하였다.

남편과 나 둘 다 한국 국적이 아니라서 (교육)보조금이 없어요. 비용이 비싸서 유치원은 부담스러워요.

(어머니 A, 20. 01. 10)

중국인 가정의 자녀는 모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었다. 5명의 중국인 어머니 중 3명의 자녀가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다문화가족 보육료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 내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매우 중시할 뿐만 아니라 '80후' 세대는 교육 비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인식하기 때문에(張明磊, 2013)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보육료 및 경비를 수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은 유아교육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중국인 어머니들은 현재 한국의 유아교육과정이 누리과정이라는 국가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중국인 어머니들은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며 대부분 비용이 적게 드는 어린이집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공적인 첫 어린이집 선정을 위해 신중을 기하며 질 높은 우수한 교육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합리적인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중국인 어머니의 어린이집 이용 중 경험

한국에서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과 관련하여 중국인 어머니들은 만족스러운 부분과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어린이집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감이 감소하고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후 나타난 자녀의 궁

정적인 변화에도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내부 운영측면과 관련하여 만족하지 못하며 자녀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1) 만족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냄으로써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개인 시간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모들은 개인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 발달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몸과 마음에 부담이 좀 줄어요.

(어머니 C, 20. 01. 18)

어린이집이 있어서 도움이 되지요. 걱정 없이 (경제적 활동 외)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D, 20. 01. 15)

중국인 어머니들은 ‘여유’, ‘시간’ 등을 언급하며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개인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는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과 동시에 그 부모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가족 정책의 일환이다(이수진, 2014). 이처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냄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가정 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보다 잘 아는’, ‘전문적’과 같은 단어에서 어린이집이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이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면서 만난 엄마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정보도 받아요. 아이 데리고 가보면 좋는데 이런 것어요.

(어머니 C, 20. 01. 18)

선생님과 자주 소통해요. 뭐 잘했다. 이런 것 집에서 도와줘라.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잘 가르쳐 줘요.

(어머니 B, 20. 01. 11)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중국 ‘80후’ 세대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은 세대에 속한다(張明磊,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 어머니들은 담임교사와 메신저, 사진, 대화 수첩으로 소통하며 자녀의 교육에서 자신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등을 배우는 것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가족 이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미영, 2011),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의 어린이집을 매개로 하여 주변의 한국 어머니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인 어머니들은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 자녀를 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 점점 더 잘해요. 우리 딸이 인사도 진짜 잘해요. 밥도 깨끗하게 다 먹고요. 이런 걸 어린이집에서 잘 가르쳐 주니까요(중략). 놀이터 나가

면 친구도 많아요. 잘 어울리고 혼자 안 놀아요.

(어머니 B, 20. 01. 11)

중국인 어머니 대부분은 ‘한국말’, ‘친구랑’, ‘기본적인 습관’ 등을 언급하며 어린이집에 다닌 이후 자녀가 보인 긍정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부모 자신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기를 원한다(이예겸, 2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된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 완만한 또래관계를 가지는 것이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서현, 이승은, 2007),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또래친구를 사귀며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아쉬운 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중국인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의 잦은 교사변동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생활공간 및 놀이공간이 자신들의 기대에 비해 조금은 좁아서 자녀들의 놀이에 방해가 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선생님 인사변동이 좀 빈번해요. 내가 잘 알던 원래 선생님 자꾸 나가요.

원에 문제가 있는지, 원이 (근무하기) 별로라서 나가나?

(어머니 D, 20. 01. 15)

중국인 어머니 중 3명은 ‘처음 보는 교사’, ‘잘 모르는 교사’라고 표현하며

담임선생님이 바뀌거나 어린이집에 낯선 선생님들로 나온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사와 유아의 관계는 단순한 양육자의 관계가 아니라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박향기, 2013) 교사 변동에 대한 아쉬운 인식이 나타났다. 중국인 어머니 3명 모두 교사가 자주 변경되는 것은 자녀의 교육에도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새로운 교사와 부모 간의 라포 형성에도 시간이 걸리며 불편함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교실 보면 놀이 공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아이들 수보다 좁은 편 인 거 같아요. 좁은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머니 B, 20. 01. 11)

중국인 어머니들 중 4명은 ‘좁아서’, ‘애들이 많이’라는 언급을 하며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이 협소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중국의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 중 1명은 ‘운동장’, ‘3층 건물’과 같이 물리적 공간의 차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놀이 공간은 아동들이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즐기고 놀이를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유아들은 또래와의 언어적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충분히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어머니들은 협소한 공간이 자녀의 성장 및 발달,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하며 어린이집의 공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중국인 어머니가 경험한 한국의 어린이집은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부모 자신도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운영 측면에서 교사관리와 물

리적 공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였으며 이것이 자녀의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국 유아원(幼稚園)과의 차이

중국인 어머니 중 두 명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자신의 첫째 아이를 중국의 어린이집인 유아원에 보낸 경험이 있었다. 두 명의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중국 유아원과 한국 어린이집을 비교하고 있었다.

여기(한국 어린이집) 갔다 와서는 글자 읽으려고 하더라구요. 문자에 관심이 생겨서 좋아요. 전에 유아원에서는 삼자경(三字經)을 배워도 동요로 배우지 글자(한문)로 쓰라고는 안 했어요.

(어머니 E, 20. 01. 19)

중국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어머니들도 면담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지인들의 유아원 이용사례와 자신의 사례를 비교하며 설명하기도 하였다. 어머니들은 글자를 쓰고 읽는 것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할 때 ‘여기서는’, ‘빨리하게’, ‘나중에 필요하니까’ 등을 언급하며 한글과 간단한 영어단어를 쓸 수 있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놀이중심 말고)전에 했던 대로...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요(중략). 아이마다 생각을 통일되게 만들 수 없으면 수업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C, 20. 01.18)

(중국)유아원에서는 내일 유아원에서 수업할 것들 미리 부모가 함께 예습

시키라고 해요. 내일 동물 배운다하면 동물사진 카드 집에 보내줘요. 그
거 보고 미리 외워오라고.

(어머니 B, 20. 01. 11)

또한 중국인 어머니들은 중국 유아원과의 차이점 맥락에서 현재의 어린이
집의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중국인 어머니 1명은 놀이중심 교육과
정이 아이들의 자유를 보장해주어 적극 찬성한다고 하였으나 그 외 4명의
어머니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4명의
어머니는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 등을 언급하며 자녀의 학업적인 부분은
전문적으로 교사의 교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숙제’, ‘배우는’
등의 단어를 통해 중국의 유아교육과정은 학습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가 한국 국적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돈 안내고 다녀요. (중국에서) 유
아원에 다닐 때는 월 ₩1,000원(한화 약 17만원)씩 내고 다녔는데...(중
략). 이것저것 다 가르쳐주는데도 돈도 별로 안 받고. 여기서 3만원? 그
정도만 더 내요.

(어머니 E, 20. 01. 19)

중국에서 어머니 E씨는 중국 어린이집과 한국 어린이집에 대한 가장 큰
차이를 비용이라고 하였다. 다른 중국인 어머니들이 한국의 어린이집 선택과
정에서 언급한 ‘보조금 지원’, ‘경비’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한국과 중
국의 보육지원 정책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어린이집을 직접 경험해 본 어머니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의 어린이집과의 운영측면과 시설측면, 그리고 국가의 정책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과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인 어머니의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다니는 한국 어린이집에 대해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 교육내용과 관계된 요구를 이야기 하였으며 부모 자신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질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가. 초등 준비교육 및 어린이집 생활 적응 지원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갈 때 요구되는 학업기술 등을 어린이집에서 교육 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이가 책 보고 글자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크면 여기서 초등학교 다녀야 할지도 모르는데. 미리미리 배우면 좋잖아요.

(어머니 E, 20. 01. 19)

또한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주로 ‘한국어’, ‘영어’, ‘읽는 거’, ‘쓸 수 있게’ 등을 언급하였다. 이는 중국인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을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곳이자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곳으로 보고 학령기 때 요구되는 학습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준비를 가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육기관에서 실시해주기를 요

구한다(현정환, 2008). 또한 중국의 부모들은 유아원과 초등학교 교육은 무조건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馬志偉,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한국 어린이집의 교육내용이 초등학교 준비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계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몇 년 있다가 남편 회사 때문에 이탈리아로 온 가족이 가서 살아야 해요. 거기 가서 사려면 영어는 필수예요(중략). 어린이집에서 전문적으로 수업해주면 아이도 쉽게 배울 것 같아요.

(어머니 D, 20. 01. 15)

중국인 어머니들 모두 언어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1명의 어머니는 추후 해외생활을 위해 별도의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1명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정식적인 중국어 회화과정이 개설되기를 희망하며 대부분 자녀가 2개 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바라고 있었다.

선생님은 반의 모든 아이를 평등하게 대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대하면 친구들하고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도 똑같이 잘 적응해서 지내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D, 20. 01. 15)

중국인 어머니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평등’, ‘선생님이 먼저’, ‘차별’과 같은 단어를 언급하였으며, 자녀가 소외되거나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로 인해 또래들의 놀이에 끼이지 못하거나 따돌림을 받기도 한다. 또한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설동훈, 2006; 오성배, 2006). 본 연구의 중국인 어머니들도 다문화가정의 자녀

가 또래와 주변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사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며 교사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과 배려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어린이집이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중국인 어머니들은 한국의 어린이집을 통해 부모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제공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운영 측면이 개선되기를 요구하였다.

아이 키울 때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도 몰라요. 어린이집에서 부모를 위한 육아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A, 20. 01. 10)

중국인 어머니 모두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배우고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특수한 요구가 아닌 모든 부모가 가진 보편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낯선 문화관에서 자녀를 키우는 중국인 어머니들은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 또한 감소되기 때문에 부모도 끊임없이 부모역할

을 배울 수 있도록(한서연, 2012)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의향에 따라 토요일도 열면 좋겠어요. 지금 원은 오는 친구가 없다고 문 달아요.

(어머니 B, 20. 01. 11)

부모가 같이 가서 하는 행사 좀 줄여주면 좋겠어요. 나는 부담되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다른 일도 시간 조정해야 하고.

(어머니 C, 20. 01. 11)

중국인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의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적 상황과 사정에 맞게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탄력적 조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영시간의 조정이 부모 자신의 시간을 확보해주어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인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지지해주고 자신들의 삶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이와 관련된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어린이집에서 중국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내용 및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어머니들은 보육내용 및 교사와 같은 어린이집 보육의 내실적 측면과 기관의 시설·설비와 보육료 지원을 고려하여 자녀가 다닐 어린이집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닌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메신저나 대화 수첩 등을 통해 교사로부터 자녀의 발달상황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들도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선생님을 통해 얻게 된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의사소통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교사에게 자문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오혜정, 2015; 정창용, 조미영; 2015).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어머니들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다각적인 정보 전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 어머니들이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어린이집의 만족도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교사나 원장과의 상담빈

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기관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이수진, 2014). 이처럼 교사는 어머니에게 있어 어린이집에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내 교사들의 빈번한 인사이동에 대해 다소 불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스트레스나 심리적 소진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주 이직하는 것과(김미숙, 2015; 지은경, 2018) 같은 관점에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유아의 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린이집 이용자로서의 부모에게도 많은 연관이 있는 존재이므로 이러한 교사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인 어머니들은 한국 어린이집 경험에 대해 중국에서 자녀가 다녔던 유아원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였다. 어머니들 대다수는 교육 방식에서의 차이를 논하며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중국 유아원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며 직접적 교수방식을 선호하는 것에 관한 자신들의 인식을 밝혔다. 중국의 부모는 ‘지식은 운명을 바꾼다.’라는 전통 속담을 믿으며 교육이 개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식한다(張明磊, 2013).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인 어머니들도 자녀가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되길 기대하며 교육적 요구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중국에서 현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馬志偉, 2019)에서는 한자쓰기, 표음문자, 숫자 등은 유아원 교사가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부모들이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중국의 유아교육은 아직까지도 ‘자녀를 출발선에서 지게 하지 마라’고 하고 있으나 한국은 ‘자녀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교육과학기술부, 2013)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놀이중심에 대한 중국인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유아기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양국 간 차이에서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교육 측면에서 많은 혼

란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을 계획할 때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한국의 교육관과 유아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모교육을 실행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인 어머니에게는 한국 어린이집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에 대한 교육적 요구 또한 높았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다섯 가정 중 세 가정이 추후 한국을 떠나게 됨으로 한국어와 동시에 중국어 또는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 내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황상심, 김화수(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외국어에 대한 교육적 요구는 이와 더불어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소외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보다 세심한 교사의 정서적인 지지를 희망하였다. 이는 교사는 유아의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한 박혜정(2017)의 연구와 유사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유아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의 유아의 친사회성 또한 높아지게 되며(김선희, 2013),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유아교사일수록 다문화가정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교육역할에 더 적극적이게 된다(구자역, 2017). 이처럼 교사의 정서적 지지 정도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다문화교사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원방안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신들을 위한 전문적 부모교육이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길 희망하였다. 이상으로 중국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자

녀의 한국 적응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 어머니의 고유문화를 반영하되 자녀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모든 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어머니들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이집 선택과정에서의 경험과 이용 중 경험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자녀의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보육의 질, 비용, 거리, 환경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어머니들은 어린이집 경험이 자신들의 양육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며 자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잦은 교사변동과 어린이집 공간이 협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속에서 어린이집 간의 기관 운영 측면, 비용, 교육내용에서 한국과 중국의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중국인 어머니들은 어린이집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요구사항에 있어서 초등 준비교육 및 어린이집 생활 적응 지원에 대한 요구와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측면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초등학교 준비교육과 관련한 교육적 요구 측면에서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에서 이중 언어와 같이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어린이집 운

영 시간 조정 등을 통해 부모의 자립 생활을 지원해주고 부모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한 제한점과 이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외국인 유입 비율이 높은 대도시에 살고 있는 20~30대 중국인 어머니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연령을 확대하여 연구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한국의 보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별면담과 추가 면담을 시행하였으나 심층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20~30대 중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포커스 인터뷰 형식의 심층면담을 실행하여 그들의 한국 유아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민정 (2014).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스트레스가 영아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민영 (2014).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지원 방안.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정선 (2010). 다문화 가정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관한 사례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해설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2006년 주요 업무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구자역 (2017). 유아교사의 다문화감수성과 다문화교육태도 관계 및 다문화교사효능감의 조절효과.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1(4), 21-42.
- 구효진 (2009). 농·어촌 다문화가정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발달수준과 공격성의 구조모형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9(3), 1-21.
- 구효진, 최진선 (2012).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2(4), 115-136.
- 권오희 (2006). 국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문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

- 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학 (2020). 다문화가정의 유아 재원으로 인해 유치원 원장님 인식한 어려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희 (2011). 보육교사의 성인애착, 효능감, 훈육방식과 유아의 적응간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 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애 (201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호연구, 3(1), 59-96.
- 김미현 (2019).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6, 147-180.
- 김민옥 (2013). 다문화가정 영유아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원장의 인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0).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과 적응에 대한 고찰.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화, 신혜은 (2008).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아동학연구, 29(2), 155-179.
- 김선희 (2013). 다문화 이주여성의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옥 (2013).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지원서비스의 문제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2013). 한국 어머니가 경험하는 일과 양육의 딜레마: 여성주의 관점에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조윤경 (2018). 어린이집 재원 영아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양육지원

- 요구 분석.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145-171.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숙 (2010).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실 (2012). 다문화가정 부모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 (2007).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한국정신건강 학술회 발표논문집, 9-32.
- 김희경 (2003).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요인과 보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태, 권영덕 (2007).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 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 남상아 (2011).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향 (2009).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연 (2011).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결혼과 이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4(2), 71-112.
- 문은식, 김미희 (2011).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교사-유아관계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0(2), 59-81.
- 박경민 (2009). 다문화가족 자녀의 환경적 요인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2007).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15-135.

- 박민정, 이병인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정과 상호작용 행동유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특수교육학연구, 45(1), 129-151.
- 박소영 (2011). 울산광역시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지숙, 이윤정 (2015). 청각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245-265.
- 박찬욱, 지성애, 김미경, 이부미, 채영란, 김현경, 김순자 (2011). 유아 다문화교육. 서울: 창지사.
- 박향기 (2014). 라온유치원 만 5세 다솜반의교사-유아 관계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정 (2017). 유아교사의 인성과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섭 (2006).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본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가능성-아시아 공동체 학교를 중심으로. 제7차 국제이해 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60-75.
- 법무부 (2020). 2020년 4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서울: 법무부.
- 보건복지부 (2019). 2019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봉진영 (201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교사의 교육 경험에 대한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덕희 (2010). 한국 다문화 연구의 특징과 한계: 국제결혼이주여성, 그리고 그 자녀에 관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3(3), 5-29.
- 서종남 (2010). 다문화 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설동훈 (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신준섭, 최옥주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인식하는 유아보육교사의 자질과 문화효능감이 기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4), 517-544.
- 양영주 (2010). 경남지역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보육시설 보육요구도. 진주 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재연, 송미선 (2009). 외국인 어머니를 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1), 51-269.
- 오혜정 (2015).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7(1), 215-237.
- 유효령, 김보경 (2016).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자기노출,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4(3), 55-83.
- 유희정 (2008).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 2(1), 1-22.
- 윤갑정, 고은경 (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147-168.
- 윤지원, 김상욱 (2017).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32, 29-56.
- 윤현숙 (2008).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태도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12(1), 415-430.
- 이교일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변인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1(1), 181-217.
- 이남주 (2019). 국내 거주 고려인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양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6, 65-95.
- 이미혜 (2004).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와 아버지의 인식 및 교육실제 비교.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어린이집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헌 (2002). 영재교육 제도와 운영 방안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예겸 (2015). 국내 거주 유아기 자녀를 둔 중국 다문화 가정의 유아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영 (2009). 다문화가정 부모 및 유아교사의 요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66.
- 이희선, 강미화 (2010).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및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0(4), 73-86.
- 오성배 (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장명림, 장혜진, 권미경, 한영숙 (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

- 유아 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전재일, 신호선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4(3), 251-283.
-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68-103.
- 정옥희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10(2), 23-37.
- 정창용, 조미영 (201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담론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3), 293-323.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 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애 (2014).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멘토링 과정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숙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련성탐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은경 (2018). 어린이집의 조직건강성이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충옥, 모경환, 임현경 (2010). 다문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사례 분석. *시민교육연구*, 42(4), 31-53.

- 최현미 (2016). 어린이집 부모교류 활동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호정, 조윤경 (2018). 어린이집 재원 다문화 가정 영아의 양육 현황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4), 85-108.
- 추민교 (2017).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29, 203-225.
- 통계청 (2018). 인구동태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 한경님 (2013). 다문화 가정 유아기 부모 역할 프로그램 개발. 한국아동복지학, 43, 125-155.
- 한미숙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영 (2011).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녀 양육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서연 (2012).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19).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현황. <http://www.mois.go.kr>에서 2020년 01월 11일 인출.
- 허영림,곽정선 (201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6, 57-99.
- 현정환 (2008). 보육시설이용 다문화 가정 부모의 보육에 대한 기대 및 문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8(4), 31-47.
- 황상심, 김화수 (2008). 다문화가정의 언어환경과 아동들의 언어발달. 한국언어, 청각임상학회 학술회 발표논문집, 68-69.
- 황정 (201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에 관

- 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SMA CHLAIHANI (2018). Challenges in Raising Children as Immigrant Muslim Parents in South Korea.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ristian, K. Morrison, F. J. & Bryant, F. B. (1998). Predicting kindergarten academic skills: Interactions among child care, maternal education, and family literacy environment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501-521.
- Corbin, J. & Strauss,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grounded theory*. Newbury Park, CA; Sage.
- Koser, K. (2008). Why migrant smuggling pays. *International Migration*, 46(2), 3-26.
- Ladd, G. W, & Price, J. M. (1986). Promoting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competence: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ask difficulty and children's perceived and a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7(2), 446-460.
- Merriam, S.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2nd ed.) SanFrancisco: Jossey-Bass.
- 百度百科 (2020). “80后”檢索. <https://baike.baidu.com>.에서 2020년 4월 20일 인출.
- 姜姍 (2013). 80后父母的子女教養方式及控制机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馬利娜 (2013). “80后”父母教育当時對幼兒自理能力的影響, 沈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馬志偉 (2019). 家長參與幼小銜接教育的現狀調查研究——以濟南市三所幼兒

園爲例，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商務部 (2019). 2019年中韓貿易概況. <http://www.mofcom.gov.cn/index>.

吳海珍 (2015). “80后”家長擇園觀的調查研究——以浙江省金華市爲例，教師博覽, 2015年第11期, 22-24.

張金果 (2019). 0-3歲嬰幼兒托育服務家長滿意度調查研究——以J省爲例，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張明磊 (2013). “80后”父母對學前階段子女的教育期望研究，西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